

글. 김성환_Kim, Sunghwan

Lanz Architekten und Generalplaner

미셸 카세르타노 / 아뜰리에 브뤼크너 (2)

Michel Casertano, Atelier Brückner, Assoziiertes (2)



MICHEL_CASERTANO

지난 기사에 이어 Michel Casertano 씨와의 인터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라 할 수 있는 Szenographie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가 한국 분들과 일을 하며 겪었던 문화 차이,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생각했던고민들에 대해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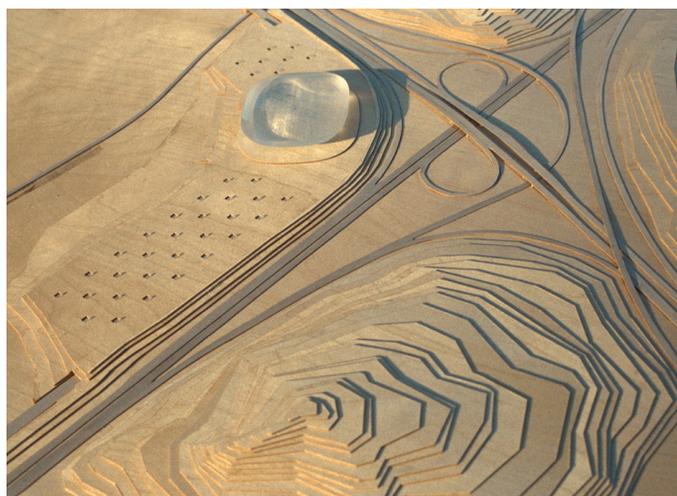
Q. 3년 전에는 여수 엑스포 2012에 세워진 'GS Caltex Pavilion'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던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이 프로젝트는 사실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주요 과제는 한국기업 GS Caltex를 위한 파빌리온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기본내용에서 나오는 건축주의 생산제품, 즉 연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그것의 필요충분조건 에너지에 관련시켰습니다. 18미터 높이에, 내부에서는 스스로 발광이 되고 반사되는 블레이드 패널이, 추상화된 풀의 줄기가 되어 바람에 움직이고, 그들의 꾸준한 움직임을 통해 자연 속에서 끊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이 상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정보 측면에서 이런 테마들을 재미 있고 흥미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방문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엑스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상화된 빛의 조각인 '에너지 초원 (Energy Field)'은 이러한 과정에서 의미가 있고, 시적인데요. 이 초원 안에서 하나의 덩어리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문자들이 실제적인 파빌리온을 가로질러 가는 길에, 빛 즉 에너지로 둘러 쌓인 그리고 빛의 놀이를 경험하는데 이는 인터랙티브 센서를 통해 만지는 행위를 통해 전체 '에너지 초원'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자는 '에너지 초원(Energy Field)' 안에서 사람과 건축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통한 하나의 메시지를 이 장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초원 안에 파빌리온이 위치하고 있고, 파빌리온의 외부 입면에서 반사되는 빛에 따라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 주변에 다른 성격의 인상적인 공간들이 계속 됩니다. 파빌리온 아래 입구에서 방문객들은, 각저 있는 천장 아래 다양한 각도에서 반사된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의 집단 안에 숨겨진 잠재성의 테마, 즉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미래가 떠오르는 것이죠. 다양한 전시물로 둘러 쌓인 파빌리온의 중심에는 회사의 메시지가 예술적인 시각으로 360도 영상물을 통해 전달됩니다.

Q. 이 당시 많은 한국 분들과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뜰리에와 한국분들 사이에서 작업하시는 동안 많은 문화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공동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요?

A. 우선 한국과 독일이라는 나라 사이에는 현대 역사에서 신기한 평행선이 있지요. 전쟁, 분단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흥미롭지만 반면, 쉽지 않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진행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규칙 안에서 관계적으로 길게



Michel Casertano 당시 졸업 작품 모델



GS CALTEX 파빌리온 입구 사진 (사진 - Nils Clauss)



Alter Hof, München, Auer & Weber (사진 - Stefan Müller-Naumann)

계획이 되고 이 계획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빨리 계획이 되고 현장에서 또한 바뀝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없었다면, 프로젝트 진행이 쉬워질 수 있었겠지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대화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저는 제 한국동료들과 오로지 그림과 간단한 영어 단어를 통해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이 놀랐던 이유는, 저는 평소 한국을 굉장히 서구적인 국가라 생각했고, 그리고 영어가 더 통상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젝트가 마감이 될 때까지 단순한 통역이상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이러한 조건 안에서 마감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GS Caltex Pavilion을 위한 계획단계에서 개장까지 주어진 시간은, 불과 8개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시간 계획은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우리에게서 성실한 동료들(창조건축)이 있었고, 마감까지 성실하게 진행했었던 현장의 좋은 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저희를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믿어줬던 GS Caltex와 People Works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Q.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 건축사로서 다양한 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졸업 후에 이 분야에서 개인적인 주관과 철학을 그 당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요. 이에 관련되어, 오늘날 졸업하는 젊은 건축인들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A. 저는 2002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고용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침체돼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졸업작품을 통해 운이 좋게도 새로이 시작하는 회사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미 두 곳의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했었고,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에서 오는 경험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었고, 많은 실무적인 경험과 외국생활은 항상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실제로 전공상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당시 가족이 없었기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단지 무엇인가 새로 배운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요. 이러한 것들이 하지만, 사실 알맞는 경제적인 상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인적으로 제가 좋게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Q. 개인적으로 많이 동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젊은 건축인들은 그들의 작업과정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체성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

분들과 같이 일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은 무엇입니까?

A.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단정지어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아닌 유럽인, 독일인으로서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고민을 위해 한국이란 나라를 유럽문화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제 경험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 젊은 건축인들이 그들의 능력과 마주하여 이미 준비되었으며, 직업적이며 전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들의 에너지를 자주 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전 부모세대들과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지요. 각각의 세대들에게 그들의 시각, 접근 방법, 기술적인 부분들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직업적인 구조상 굉장히 강한 위계질서가 있기에, 젊은 건축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줍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젊은 건축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든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Q.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마무리 하는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휴식입니다. 하하. 아틀리에에서 진행된 복잡하고 흥미로운 작업들 사이에서 저는 2년전 슈투트가르트에 1930년대에 지어진 집을 하나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건축사, 각 분야의 전문가와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있다는 데에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기도 하지요. 이러한 시간이 지나가면, 제 가족들과 새로운 집 앞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Michel Casertano는 1974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1995년부터 2002년 TU München에서 건축을 공부하였다. 전공기간 동안 영국 University of Bath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였으며, Ackermann & Partner 그리고 Herzog & Partner 건축사무소에서 기본적인 실무를 경험하였다. 최고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 후, 뮌헨에 위치한 Auer & Weber에서 수많은 공모전을 진행하고, 독일 München 시내에 위치한 Alter Hof 프로젝트를 마감하였다. 2005년부터는 Atelier Brückner에서 다양한 전시 설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슈투트가르트 국립 미술 대학(Die staatliche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Stuttgart) 미디어 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하였다.